

與 '국정안정' 굳히기 vs 野 '독주견제' 배수진

6·3 지방선거 D-26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내달 3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사활을 건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출범 1년을 맞이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첫 전국 단위 평가라는 점에서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거머쥐며 진보 진영의 장기 집권 토대를 굳힐지, 아니면 절명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이 기사화하며 보수 재건의 신호탄을 쏘지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분수령...일각 '15대 1' 시나리오
코스피 7천 혼풍 속 '부동산·특검법·부동증' 막판 3대 변수
14곳 '미니 총선', 조국·한동훈 등 거물 성적표 초미 관심**

◇60%대국정지지...정권심판'안락하는野 현재 전국적인 선거 판세는 집권당인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당 후보 다수 당선(국정 안정론)'을 기대하는 응답은 46%로 '야당 후보 다수 당선(정권 견제론)' 30%를 오차범위 밖에서 여유 있게 따돌렸다.

민주당은 6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탄한 지지율을 심판 활용하고 있다. '국정안정론'과 '일꾼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특선했던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겨냥해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호소하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경복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장을 싸늘이하는 이른바 '15대 1' 승리에 대한 기대감마저 감지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각종 압박 및 정책 독주를 심판해달라며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정권 출범 초기라는 점과 장동혁 대표의 강성 우파 행보 논란 등이 겹치며 선거의 핵심 동력인 '정권 심판론'이 좀처럼 불붙지 않는 형국이다.

◇증시활황에문헌부동산...수도권'숨은노관' 전문가들은 남은 달간 선거판을 뒤흔들 막판 변수로 경제 이슈와 부동산의 표심을 꼽는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7,000포인트를 넘는 등 전례 없는 주시 시장의 활황은 증등 전쟁이라는 대의 악재 속에서도 정부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숨은 뇌관'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 야권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세제 문제를 고리로 '야당 승리 시 부동산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쟁점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보수결집·'특검법' 폭풍...부동증 27%향배 위기감을 느낀 보수 진영의 막판 결집 여부도 관련 포인트다.

여기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검찰 조작 실패 규명을 위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셀프 사면'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슈는 양 진영의 코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27% (서울 32%)에 달하는 무당층의 최종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곳 '미니 총선'...거물급 성적표 촉각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는 차기 대권 지형과 여야 당권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경기 평택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부산 북갑),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인천 연수갑), 이광재 전 강원지사(경기 하남갑) 등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성적표도 선거 직후 정계 개편의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8월 전당대회 연임 가도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거취가 극명하게 엇갈리게 된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강원지사), 김병국 전 정부 비서관(성남시장) 등 청와라 출신 인사들의 당선 여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후광'을 입증하는 가능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평가 관계자는 "이번 6·3 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지방 불균형 해소, 에너지 전환, AI 선도 국가 등 굵직한 국정 과제에 가속 페달을 밟을지, 야당의 거센 견제에 부딪혀 국정 동력을 재조정할지를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접촉률 39.2%, 응답률 1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진수기자



'국민 외면한 국힘'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상정 뒤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당원 국민의힘 의원석을 지나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불참, 국회 '개헌안 투표' 불발

의결정족수 부족...민주, 오늘 재시도
地選 개헌 국민투표 사실상 무산 전망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2·7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투표를 재시도할 예정이나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6·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44분께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2시5분에 상정된 개헌안 투표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178명이 참여했다.

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191명) 찬성이 필요하다. 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 국민의힘(106명)은 불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결국 본회의장에 나타나 차려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결국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아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다불어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투표를 재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투표불성립 선언 뒤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면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일정에 맞춘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

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투표법상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이날 10일까지는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춰 헌법을 바꾸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왔으나 정치·정책 이슈 등과 맞물리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서 2020년 국민발안제도 원포인트 개헌안,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등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일부 정당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다. /김진수기자

Today	
"우리 딸 어떡해 못 보내" 눈물속 발인	6면
KIA '신형 대포' 아테리론 존재감 폭발	16면
주간만화(웹툰) '볼셋국용'	20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기념

광주시민 5·18시낭송회

■ 일시: 2026년 5월 29일(금) 오후 3시 ■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5층)

광주매일신문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광주시민 5·18 시낭송회'를 개최합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매일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재능시낭송협회 광주지부 주관으로 5월 29일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광주시민 5·18 시낭송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을 기념하고 숭고한 뜻을 널리 전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이날 시낭송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가치를 담은 다양한 시를 낭송 전문가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합니다. 시낭송에는 재능시낭송협회 광주지부 회원들이 주축이 돼 5·18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광주매일신문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최 5·18기념재단 · 광주매일신문
주관 광주매일신문 · 재능시낭송협회 광주지부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